

## 비틀어진 인물 형상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변신의 의미 확장 가능성

-〈외쪽이 설화〉를 중심으로-

김나영\*

<차례>

1. 몸-비틀어짐-변신
2. 외쪽이가 보여주는 자기 존재성 탐색 과정
3. 인식의 전환을 통한 자기 구원과 긍정적 미래관 제시
4. <외쪽이 설화〉를 통해 본 인식의 전환과 변신의 의미 확장 가능성

### <국문초록>

본 글은 고전 서사문학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정상적·상식적인 수준의 몸의 형상을 지니지 못한 등장인물이,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수용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를 살피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고전 서사문학에서는 등장인물의 왜곡되고 비틀어진 형상으로 인한 태생적 불리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변신 모티프'가 원용되기도 하였다. 신이하고 환상적인 방법에 의한 변신은 변신 주체로 하여금 단번에 자기 존재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며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대응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글은 변신이 단순한 '몸바꾸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변신의 범위는 훨씬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문학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변신 주체와 그 문학 텍스트 수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 또한 변신의 기능이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고 여겨진다. 초현실적 사건이 매개되지 않는다 하여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변신의 또

\* 경기대학교 강사

다른 형태와 의미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글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나와 대상의 관계맺음’에 관한 의식적·무의식적 활동으로 변신의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등장인물에게 주어진 ‘몸’의 형상이 예상을 뒤엎는 왜곡된 상태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나와 대상’ 사이의 관계맺음은 인식의 전환이라는, 일종의 정신적 심리적 변신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변신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면 인간의 근원적 원망이라 할 수 있는 ‘변신’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문학 속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본 글은 그러한 가능성을 <외쪽이 설화>를 중심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몸, 변신, 관계맺음, 비틀어짐(왜곡), 존재성 탐색, 인식의 전환, 자기 구원, 긍정적 미래관, <외쪽이 설화>

## 1. 몸-비틀어짐-변신

본 글은 첫째,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몸-비틀어짐-변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즉 왜곡됨으로 인해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몸의 형상을 지니지 못한 인물이,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정신적 변화가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러한 물리적·정신적 변화를 변신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단순한 ‘몸바꾸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변신의 개념을, 물리적 변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의 외적 변모 외에도 심리적·정신적 변화 또한 변신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변신에는 ‘몸-육체’ 외에도 ‘정신-영혼’의 문제, ‘자아/타자’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함께 얽히게 되고, 결국 변신이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나와 대상의 관계맺음’에 관한 의식적·무의

식적 활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게 된다.<sup>1)</sup> 특히 등장인물에게 주어진 ‘몸’의 형상이 예상을 뒤엎는 왜곡된 상태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나’와 ‘대상’ 사이의 관계맺음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몸’에 대한 담론은 현대문학에서도 끊임없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 이론은 몸이 단순한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신체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담론구조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면서 발생시키는 기표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는 몸이 지니고 있는 기호학적 기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러한 기능이 어떠한 구조를 통해 언어객체(subject)에게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방법으로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몸에 대한 인식을 ‘육망의 대상으로서의 몸’, ‘사회적 가치의 생산자로서의 몸’ 그리고 언어객체, 기표, 사회구조간의 역동적 작용/반작용의 관계로서의 몸’으로<sup>2)</sup>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 중 문학에서 다루게 될 변신의 측면에서 의미 있게 읽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육망의 대상으로서의 몸’이다. 모든 육망의 대상은 ‘몸의 심상’을 띠고 있으므로 문학에 산재한 몸의 심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기능에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관점도 의미 있다.<sup>3)</sup>

프로이트는 일찌감치 무의식의 세계를 상정하고 무의식은 오히려 육체적 영역에 가까이 있다고 여겨 ‘자아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육체적 자아’라는 명제를 내놓았다. 자아는 육체적 실체와 그 경계를 정신에 투사한 결과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자아가 육체를 통해 나타나며 육체

1) 이에 대해서는 김나영, 「고전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프 구현 양상과 의미」, 성신여대 박사논문, 2006 참조.

2) 어도선, 「라캉의 “거울단계”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몸 철학과 문화비평」, 『비평과 이론』2, 한국비평이론학회, 1997, 67-68쪽 참조.

3) 같은 글, 68쪽.

는 자아의 욕망을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육체는 욕망에 대한 매개적 위치에서만 파악됨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4)</sup> 라깁 역시 육체적 자아의 파악 과정은 여타 감각과 시각을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서 시각이 육체와 자아에 일정한 통일감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울단계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유아가 거울에서(또는 무의식적 동일화의 대상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표상된 심상을 가정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는 심리적·정신적 분열의 경험이라는<sup>5)</sup> 것이다. 다만 유아적 거울 단계를 지나서도 이러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타인들에 의해서 또는 타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보다는 환상, 꿈, 소망, 바람 등을 통해 현실을 접촉하게 된다.<sup>6)</sup> 몸이라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실체가 담론의 차원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논리와 환상이 개입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변신의 ‘몸바꾸기’라는 의미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물학적 객체 혹은 물리적 개념의 몸이 아니라 ‘무의식 혹은 욕망의 매개로서의 몸의 전환과 전이’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때문에 변신 후의 변신체에 대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변신 전의 본체와의 관계 설정이 가능한 것이다.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가 미완성의 존재이며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고, 이 몸을 매개로 타인과 주변 세계와의 상호관계의 장을 열며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7)</sup> 다시 말하면 인간은 몸-육체를 존재의 공간으로 의탁하고 있으면서도 무수한 의미를 표출하는 잠재적 텍스트인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욕망과 심

4) 조규형, 『탈식민지론과 몸: 식민에서 디지털까지의 몸 담론』, 『비평과 이론』6-1, 한국비평이론학회, 2001(봄·여름), 158쪽 참조

5) 어도선, 앞의 글, 69쪽 참조

6) 같은 글, 71쪽 참조

7) C. A 반퍼슨, 『몸·영혼·정신』, 손봉호·강영안 옮김, 서광사, 1985, 129쪽 참조

리를 표출하는 표징인 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변신은 그래서 일상생활의 규격성·제도성·확일성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적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내면적 위선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sup>8)</sup> 또는 인간의 자아 완성을 도모하기 위한 역동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sup>9)</sup> 이것으로 보아 변신이란 몸과 정신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역동적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 사상의 맥락에서 인간에 대한 담론은 ‘육체-몸’과 ‘영혼-정신’의 결합체로 인식되었고 대개는 시공간적 한계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영혼에 대한 우위성을 지적하며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인간은 영혼이나 정신이 선행하고 그 뒤를 육체나 몸이 따르게 되어, 영혼과 정신은 육체와 몸에 우선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게도 되었다. 하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다. 변장이나 변복 후에 따르는 내적 변화는 외적 형상의 변화가 계기가 되어 이루어지기도 하며 외적 형상의 변화는 형상에 따라 의식적인 행위의 변화가 수반되고 이러한 행위의 변화는 무의식적 인식의 전환을<sup>10)</sup>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변신이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세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라고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물리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정신적 변화 즉 인식의 전환은 지

8) 이러한 의미에서 변신은 탈(가면)과의 관련성을 지닌다. 탈(가면)의 일차적 기능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데 있다. 그것은 위장과 기만을 본질로 하며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는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반면에 그것은 인간의 위선을 폭로하는 장치가 되어,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야수성의 상징으로 드러나기도 한다.(Jean Baudrillard, 『시물라시옹』, 하태완 譯, 민음사, 1997, 221쪽 참조)

9) 노승욱, 「이상 소설에 있어서 <변신>의 문제」, 『관악어문학연구』25, 서울대국어국문학과, 2000, 103쪽.

10) 본 글에서 언급하는 ‘인식의 전환’이란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가치체계의 전환 또는 그러한 현상에 내재된 이면적 가치체계의 획득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의 전환이며 확장이라 볼 수 있다.

금 시대의 변신을 논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이 변신모티프에서 비롯될 수 있음은 문학 작품 내에서 변신모티프의 변용과 의의를 확장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실제 문학 작품에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작품을 읽는 독자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더욱 의미를 둘 수 있다. 서사를 이끌어가는 등장인물들의 인식 전환이 변신 주체의 자아 인식에 있다면 독자들의 인식 전환은 변신 주체의 자아 인식 과정을 통해 변신 주체의 본체와 변신체 사이의 관계와 표상하는 바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글은 비틀어진 형상의 몸을 지닌 등장인물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쪽이 설화>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sup>11)</sup> <외쪽이 설화>는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신이성과 민담적 결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 보다 진보된 의식 세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외쪽이라는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행동 유형과 결과가 현대의 사고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1) 본 글에서는 중심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현대소설 <병어리삼룡이>와 <추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병어리삼룡이>와 <추물>에도 역시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경험하게 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의 설정이 고전소설 <영이록>과 <박씨전>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비록 고전소설과 달리 비극적 결말을 이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좌절의 상황에서 삶의 긍정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2. 외쪽이가 보여주는 자기 존재성 탐색 과정

변신모티프는 기본적으로 ‘관계맺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간과 비인간이든 인간과 인간이든 혹은 나와 또 다른 나이든, 관계맺음의 성공은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하나의 개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그 존재성을 인정 받는 과정이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낯선 개체는 세계와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데 집중한다.

개체의 존재성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도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이 세계에 용납될 수 있는 존재로 서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여 적응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 세계가 자신을 포용하도록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첫 번째 경우가 관계맺음을 욕망하는 주체의 변신을 필요로 한다면 두 번째 경우는 변신 주체가 상대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변형된 변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세계를 변화시켜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실상을 인지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의 진정성이 설득력을 얻었을 때 관계맺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의 진정성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내야 할 무엇이 있다면 이미 드러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개체를 통해 드러나는 무엇과 드러나지 않는 무엇의 병립, 혹은 인지되는 무엇과 인지되지 않는 무엇의 병립은 마치 변신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는 자아와 또 다른 자아 사이의 병립과 대응된다. 한몸에서 비롯되었으면서도 서로 다른 욕망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두 가지 표상은 그

를 둘러싼 대상과 수용자에게 眞假와 實虛를 되묻게 한다. 그렇다면 <외쪽이 설화>에서 외쪽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1) 난제 해결을 통한 존재 가치 획득

<외쪽이 설화> 유형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각편은 10여 편으로 그리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아직 활발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화에서부터 이어오는 영웅적 면모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절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와의 대면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는 민담적 속성<sup>12)</sup> 또한 지니고 있는 매우 특이한 유형의 설화가 바로 <외쪽이 설화>이다. 외쪽이가 지니는 영웅적 속성이 <외쪽이 설화> 서사의 출발점이라면 외적 불리함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는 외쪽이의 승리는 <외쪽이 설화> 수용의 도달점이라 할 수 있다.

- (가)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 갖기를 기원하다.
- (나) 비방으로 먹을 것을 세 개 얻게 되어 두 개는 온전히 먹고 한 개는 반만 먹다.
- (다) 아들을 낳으니 둘은 온전하고 하나는 외쪽이다.
- (라) 형들이 과거를 보러갈 때 외쪽이가 따라가려 하지만 떠돌리다.
- (마) 범의 소굴에 들어서게 되나 외쪽이는 범들을 처치하고 가족을 벗겨오다.

---

12) 조동일은 民譚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자아의 우위에 입각해 전개되는 서사문학으로 정리된다고 하면서 민담의 주인공은 처음에는 자아의 능력이나 지혜가 보잘 것 없는 경우라도 세계에 대한 자아의 우위는 의심할 바 없는 것이라 하였다.(『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81, 121쪽 참조) 뿐만 아니라 장덕순(『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19쪽) 또한 민담은 주인공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의 행위는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강등학(『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120쪽)도 민담이 펼쳐 보이는 세계는 본질적으로 낙관적이다. 그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바) 가족을 탐낸 부자와 내기를 하여 이기고 그 집 딸과 혼인하다.

위의 (가)~(바)는 <외쪽이 설화>의 일반적 서사단락이다. '외쪽이의 출생-외쪽이의 과업 성취-외쪽이의 결연 성취'의 수순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영웅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다)에서 보는 바와 외쪽이의 출생은 기자치성에 의한다. 비방을 얻어 과일 등의 먹을 것을 세 개 얻게 되는데 두 개는 온전히 먹고 한 개는 반만 먹고 놓아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린다. 때문에 남은 하나는 온전하게 다 먹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첫째와 둘째 아들은 정상적으로 출생하였으나 셋째 아들은 인간이 지녀야 할 모든 요소를 반만 지닌 외쪽이로 태어나게 된다. 다만 외적 형상만 반쪽일 뿐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모든 능력에는 외쪽이 역시 전혀 구애됨이 없으며 외쪽이가 지닌 힘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된다. 비밀상적 상태에서 잉태하여 비밀상적 형상을 지닌 외쪽이가 범상치 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웅의 출생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쪽이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라)와 (마)이다. (라)에서 과거보러 가는 형들을 따르려는 외쪽이를 형들은 나무나 돌절구 등에 묶어 놓고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지만 그 때마다 외쪽이는 나무나 돌절구를 뿌리째 지고 와 자신의 집에 부러 놓고는 쫓아가기를 계속한다. 외쪽이의 능력이 '힘'으로 구체화되는 순간이다. 그러다 세 형제는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범의 소굴에 들어서게 되고 자신들이 위협에 처해 있게 된 사실을 엿듣게 된 외쪽이가 형들을 먼저 도망을 시킨 후 저 혼자 범에 대항하여 승리하여 범의 가족을 얻게 된다. (마) 부분이다. 외쪽이 개인이 지닌 힘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형들과의 갈등을 해

소하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웅의 과업 성취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외쪽이가 소탕한 범들은 아버지의 원수로 설정된 각편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적 인물의 '부친 탐색담'과 관련지을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되었음은 부재한 아버지의 존재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반쪽이로만 존재하던 외쪽이의 상징적 완전함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바)는 공적 과업을 달성한 외쪽이가 결연을 성취하는 부분이다. 공적 과제를 외쪽이가 지닌 생래적 힘을 도구삼아 이루었다면 외쪽이의 결연은 꾀-지혜로써 성취한다. 외쪽이는 모든 가족과 비속들이 감시하고 지키는 가운데 부자의 딸을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혼인이 가능하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할지라도 밤낮을 지키고 있는 감시자들을 따돌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 외쪽이는 감시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행동을 개시한다. 며칠을 꼬박 새운 사람들-감시자들은 외쪽이가 들어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잠을 깨지 못했고 외쪽이는 유유히 자신의 신부감을 데리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신화 속의 주인공들에게는 외적 능력 못지않게 내적 능력 또한 중요시된다. 그들의 내적 능력은 지혜와 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신화에서는 종종 '속임수'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쪽이의 경우에는 (라)와 (마)에서 보여준 것과 달리 기다림의 지혜로 결연에 성공한다.

이렇듯 신화적 맥락에서 <외쪽이 설화>의 구조를 살펴계 되면 외쪽이의 불완전한 외적 형상은 오히려 신성의 또 다른 표현이며 아버지의 부재가 드러나는 각편일 경우에는 생태적 불완전함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신성을 보유한 외쪽이에게 외적 형상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아버지의 원수인 범을 처치함으로<sup>13)</sup> 인해 반쪽이이던 존재성에

온전함을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sup>14)</sup> 낳게 한다. 때문에 (라)와 (마)의 성공은 (바)를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결국 외쪽이는 주몽의 아들 유리태자와 비슷한 경우로 생래적으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부재한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 하고 사회적으로도 멸시를 받다가 (유리태자는 아버지도 없는 자식이라는 모욕을 당하고 어머니 유화에게 아버지 존재를 묻게 된다) 아버지 주몽과 대면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존재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과 대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외쪽이가 지닌, 반쪽이라는 비정상적 외적 형상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외쪽이 입지의 불완전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둘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을 하나만 지니고 있을 때의 열등함이 외쪽이로 하여금 가정 내에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적 진출의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다. 외적 형상으로 외쪽이의 존재성까지 모두 부인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리함을 외쪽이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성을 완성시켜 나아간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의 원수인 범을 처치함으로써<sup>16)</sup> 반쪽뿐이던

13) <한조가리와 반조가리형제>, 『한국구비문학대계』7-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3쪽; <외쪽이>, 같은 책 4-4, 99쪽.

14) 실제로 <외쪽이 설화> 중에는 아버지의 뼈를 찾아내는 각편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부친 탐색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외쪽이 설화>의 시작이 신화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15) (라)와 (마)의 성취가 (바)를 가능케 한다는 점은 신연우와 상통하지만 신연우의 경우에는 (라)와 (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기준을 얻은 것이라 하였고 (바)의 혼인이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한 개인이 짝을 얻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반쪽의 자기 실현, 자기 완성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였다.(『<외쪽이 설화>와 <地下大賊退治 說話>에 보이는 自我의 自己實現 양상』, 『열상고전연구』 15, 열상고전연구회, 2002, 297쪽 참조) 하지만 (바)의 경우는 우주적 조화로서의 결합이라면 (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으로서의 독자적 존재자로서의 온전성은 아버지의 원수 범을 처치하게 되면서 획득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16) <한조가리와 반조가리형제>, 『한국구비문학대계』7-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3쪽;

존재성에 온전함을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sup>17)</sup> 형들의 목숨을 구해 주고 아버지의 존재를 획득하면서 가정 내에서 외쪽이의 반쪽짜리 혈통은 완전함을 되찾는다. 두 번째는 자신의 배우자를 얻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외쪽이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감시망을 뚫고 색시를 데리고 나와야 했으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혼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혼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 존재성을 인정받는 것으로<sup>18)</sup> 두 가지의 난제 해결을 통해 외쪽이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외쪽이의 존재성 입증은 물리적 변화를 통한 외모의 온전함을 획득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서사 전개상 반쪽만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외적 형상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일상의 단절을 통한 내적 자질이나 심리의 급격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외쪽이와 외쪽이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맺음의 완성이 드러날 뿐이다. 즉 외쪽이의 존재성은 범을 소탕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색시가 될 부잣집의 딸을 훔쳐 나오기 전과 후에 달라진다. 외적 형상으로 인한 외쪽이와 세계와의 단절이 난제를 해결할 때마다 한 단계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외쪽이는 세계와의 관계맺음에 성공하고 외쪽이라는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자아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맺음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외쪽이>, 같은 책 4-4, 99쪽.

17) 실제로 <외쪽이 설화> 중에는 아버지의 뼈를 찾아내는 각편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부친 탐색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외쪽이 설화>의 시작이 신화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18) 신연우는 과거 응시를 위해 형을 좇고 범을 처치한 행위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기준을 얻은 것이라 하였고 이후, 혼인이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한 개인이 짝을 얻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다. 곧 반쪽의 자기실현, 자기완성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였다.(『<외쪽이 설화>와 <地下國大賊退治 說話>에 보이는自我의 自己實現 양상』, 『열상고전연구』15, 열상고전연구회, 2002, 297쪽 참조)

## (2) 낯선 인물을 통한 인식의 전환

<외쪽이 설화>설화를 처음 접하게 되는 수용자는 외쪽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의 '비정상'에 매우 놀라게 된다. 그러면서도 또한 '눈도 귀도 손과 발도 모두 하나씩만' 지닌 비정상적인 외쪽이가 형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소외와 멸시가 또한 '비정상'적인 부당함이라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늘 인식해오던 '정상'과 '비정상'에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의외성'과 상통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외쪽이 설화>에 등장하는 외쪽이의 외적 형상이 주는 의외성은, 미학적 개념인 그로테스크(grotesque)가<sup>19)</sup> 안겨주는 낯설게 하기의 기능과 연결될 수 있다. 그로테스크란 일반적으로 비적합성·이질적인 형식들의 혼합·일그러뜨리기 양식 또는 변형양식·기대지평의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다층적인 미적 범주이다.<sup>20)</sup> 또한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재현하지 않고 과장과 왜곡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에 직면한 수용자는 현실 세계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스스로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즉 그로테스크는 현실을 동일화하기보다는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낯설게 하기' 기능이라는<sup>21)</sup> 것이다.

하지만 단지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일그러뜨리는 것 자체로 인식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문학 작품에 드러난 그로테스크가 아

19) 본래 '그로테스크'는 회화 용어로서 '이상하게 만들기'라는 뜻을 지니고 미학적으로 볼 때 像의 변형·왜곡·과장이며 또한 강등과 비하, 일상적인 세계의 전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 Pilip Thomson, *The Grotesque*, London: Methuen & Co Ltd, 1972, 김영무 역, 『그로테스크』, 서울대출판부, 1986, 13-25쪽 참조

21) Bertolt Brecht, *Bertolt Brecht Werke*, 김기선 옮김, 『서사극이론』, 한마당, 1990, 61쪽 참조

무런 이유도 없이 단순히 표현된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과장되어야 하는 상황이 현실에 근거하고 있음<sup>22)</sup>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다. 즉 추하게 일그러진 모습을 통해서 현실의 가면을 벗기거나 수치스런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실제의 추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과장하여 묘사했을 때 독자는 당황하게 되고 이 때 그로테스크 본래의 역할이 완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로테스크는 정상적이고 고상한 것 또는 이상적인 것을 비틀고 추하게 만들어 그 가치를 강등시킴으로써 익숙했던 세계를 바꾸어 낮은 세계·소외된 세계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일상적인 질서와 합리적·체계적인 사고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단지 부모의 실수로 인하여 선천적으로 기형적 외모를 소유하게 된 외족이의 등장은 들어야 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여 과연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도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외족이의 반쪽 형상이, 부족하여 소외된 세계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외족이를 향한 거부는 그들이 받아야 하는 부당한 편견이며 이를 극복하는 외족이의 행적은 외족이가 대면한 세계와 수용자에게 인식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로테스크는 역동적인 힘의 표출을 상징하기도 한다. 신화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왜곡되고 비틀어진 형상은 신성의 또 다른 표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 신성은 인간을 능가하는 초월적 힘과 능력으로 구체화 되는데, 그러한 신성이 소거되었을 때 그로테스크적 힘의 표출은 상황의 반전이나 변용·갱신을 향한 욕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로테스크적 일그러짐과 비틀림은 혐오감이나 거부감,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데에만

---

22) 유종영, 「문학에서 그로테스크-문학작품 분석방법으로서의 개념」, 『독일문학』35, 한국독어독문학회, 1985, 230-235쪽 참조

기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 현실의 부조리를 역으로 표출시키고 있으며 그로테스크적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오히려 희극적이고 회화적이다. 현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사회의 풍토와 인식에 일침을 가하되 웃음을 동반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리적·정신적 정화효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외쪽이의 존재는 조롱받아야 마땅한 존재처럼 보이거나 오히려 외쪽이를 거부하는 형들에게서 부조리를 경험하게 되고 외쪽이가 벌이는 행동에서는 긴장감 속에서도 웃음을 동반하게 된다. 형들에 의해 나무나 바위에 묶여 있던 외쪽이가 오히려 나무와 바위를 통째로 뽑아 집안에 들여놓는 장면에서 느끼는 황당함이나 외쪽이가 신부감을 훔쳐 데리고 나오는 장면에서 신부측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는 소동은<sup>23)</sup> 사건의 발단이나 상황과 대비를 이룬다. 즉 두려움이나 공포, 작전의 실패에 의한 좌절이 있어야 할 장면에 오히려 웃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로테스크가 두려움이나 공포와 함께 웃음이라는 희극성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상의 형태와 힘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의 마음을 일으키는 듯하지만 역으로 희극적 면모를 제시함으로써 삭막하고 경직된 삶에 긴장을 풀어내고 변화와 갱신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적으로 비정상적 형상을 지닌 외쪽이가 내적으로 비정상적 심성을 지닌 사람들 우위에서 그들을 굴복시키거나 웃음거리로 만듦으로써 상대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로테스크가 왜곡된 사회 현실과 황폐화된 현대사회의 비인간성을 예술작품에 담아서 현실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기능과<sup>24)</sup> 다르지 않기 때

23) <반쪽 아이의 재주>(충북 청주시 설화), 『한국구비문학대계』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7쪽.

24) 유인경, 「오태석의 <부자유친>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한국극예술학회』17, 한

문이다. 특히 <외쪽이 설화>에서는 외쪽이의 행적을 좇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정상과 비정상 혹은 미추와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쪽이와 형들의 대립, 외쪽이와 부자의 대립을 통해 정상과 비정상이 바로 美醜와 好不好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善과 惡을 대표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외쪽이가 지닌 외적 결함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빼앗길 수 없으며 자기 성취와 욕망을 숨길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욕구를 획득해가는 과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외쪽이 설화>의 외쪽이 형상을 그 어떤 신성의 표상이나 징벌의 표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상실한 것’, 혹은 ‘인간적인 것이 추하게 일그러지고 추악화된’ 형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추악하다 못하여 반쪽뿐인 결손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니 외쪽이는 그로테스크한 인물의 표본적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는 그는 ‘정상’의 대척점에서 어떤 관료적인 공식·문화의 표준력·정태적인 세계와 대립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외쪽이라는 존재와 행위만으로도 고착된 인식의 전환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한 단계 성숙되고 향상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보다 확장된 기능과 의미의 변신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신의 초현실성이 더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변신의 내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던 통과의례 구조가 전면에서 부각되면서 변신 모티프 또한 그 의미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시공간적 일상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고 분리나 전이 이전의 주체와 상황이 소거될 수 있다면 충분히 변신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쪽이 설화>에서의

외쪽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외쪽이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면서 이루어진다. 자의든 타의든 무의적이든 의식적이든 외쪽이는 적대자의 공간에 들어가 적대자를 죽음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유유히 빠져나와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게 된다. 형들을 구하고 부친의 존재성은 물론 혼인의 기회까지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설화의 수용자에게까지 비판과 각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듯 외쪽이는 불안하기만 한 자신의 존립과 존재성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로소 확립하게 되는데<sup>25)</sup> 그것이 '변신'과 같은 환상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여타의 작품들과 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외쪽이 설화>에서 외쪽이가 보여주는 세계와의 대결 과정이 현실에서 한없이 왜소해지지만 하는 인간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외쪽이 설화>는 외쪽이라는 불완전한 존재가 난제 해결을 통해 세계와의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확립하고 세계와의 관계맺음에 성공하고 있는 설화라고 볼 수 있다. 겉모습의 비정상성·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해야 했던 외쪽이가 그 존재를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쪽만으로 이루어진 겉모습의 비정상성과 그의 내적 심성이 드러내는 정상성 사이에서 <외쪽이설화>의 수용자는 일반적·상식적 인식과 편견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외쪽이설화>의 서사 문면에서 본래적 의미의, 고전적 형태의 변신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외쪽이라는 한 존재와 세계의 관계맺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변신의 내적 의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변신의 범주 안에

25) 이는 신화적 관점에서 <외쪽이 설화>를 분석할 때에 있어서도 외쪽이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었다.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더구나 반쪽이라는 비정상적 외형을 지닌 외쪽이의 낯선 등장이 정당하고 이상적인 난제 해결과정을 통해 외쪽이의 존재를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등장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 혹은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 자아와 또 다른 자아와의 관계 형성에 머물러 있던 변신모티프가 설화텍스트와 텍스트 수용자 사이의 관계 형성에까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사 내적으로 작용하던 관계맺음에 관한 변신의 속성이 서사 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인식의 전환을 통한 자기 구원과 긍정적 미래관 제시

변신이란 본래 서로 다른 존재 사이의 관계맺음-존재 사이의 넘나들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로 인간의 문제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변신에 의한 관계맺음도 인간인 나와 너, 나와 또 다른 나 사이의 관계맺음으로 변신 주체의 범위는 축소되는 반면 그 의미와 기능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미처 인지되지 않은 자아의 존재성을 탐색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해하는 과정이나 그 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생각의 충격과 인식의 전환까지 변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불완전하고 미숙한 인간 존재, 그 현존재에 대한 불안함과 욕망을 해소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리는 일이 될 수 있으며 비극적 미래를 긍정적 미래로 바꾸는 계기도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적·내적으로 지극히 열등한 모습을 타고난 인물이 겪게 되는 타인과의 갈등, 사회에의 부적응, 가치관의 혼란 등은 그 어느

---

26) 김나영, 앞의 논문 참조.

누구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외족이처럼 비정상적 형상을 지녔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박씨전>의 박씨나 <김원전>의 김원, <영이록>의 손기 또한 그들에게 부여된 생래적 열등함과 장애로 인해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신'이라는 초현실적·환상적 신체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들은 소외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sup>27)</sup>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왜곡된 형상을 지닌 인물들의 등장과 갈등의 해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고전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추모형 혹은 왜곡형 인물 형과 비교해봄으로써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설화나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유형을 외모와 성품 그리고 그가 지닌 내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형을 살펴보면 대략 8가지 정도로 분류해볼 수 있다.<sup>28)</sup>

27) 현대소설인 <병어리 삼룡이>(나도향)와 <醜物>(주요섭)에 등장하는 주인공 삼룡이와 언년이의 인물상 또한 외족이와 같은 맥락에서 묘사되고 있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오히려 외족이 못지않은 외적 형상과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 외모에서 풍기는 기괴함은 물론이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내적 미성숙에 처해 있는 '삼룡이'와 '언년이'를 통해 인물의 열등함과 비극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삼룡이와 언년이의 열등함은 외적으로 흉측하고 못생겼다는 점과 내적으로 평균치를 밑도는 정신연령을 지녔다는 점에서 배가되며 그 비극성은 삼룡이와 언년이가 과연 세계와의 관계맺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실패할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룡이와 언년이에게 설화나 고전소설에서 볼 수 있는 초현실적 변신의 기회가 제공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만무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삼룡이와 언년이를 대하는 서사 내적 시선도 서사 외적 시선도 곱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 '인지할 수 있는 것'에 한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28)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사물에 등장하는 인물형을 세밀하게 아우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보편적·일반적인 인간형으로 정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일단 정리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 ㉠ 외모와 성품, 내적 능력이 모두 뛰어난 경우
- ㉡ 외모와 성품은 뛰어나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외모와 능력은 뛰어나나 성품이 바르지 않은 경우
- ㉣ 외모는 뛰어나나 성품이 바르지 않고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경우
- ㉤ 외모는 보잘것 없으나 성품이 바르고 능력이 뛰어난 경우
- ㉥ 외모도 보잘 것 없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나 성품이 바른 경우
- ㉦ 외모도 보잘 것 없고 성품도 바르지 않으나 능력이 뛰어나 경우
- ㉧ 외모도 성품도 능력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외모와 성품 능력의 모든 요소를 겸비한 이상적인 인물형이 ㉠이라면 외모와 성품·능력이 모두 충족되지 못한, 가장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인물형이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8가지 중 고전소설 속 인물 유형을 설정할 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등장인물의 성품이다. 성품이 正道에 입각해 있고 삶의 목표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선인형'과 '악인형'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 의하면 ㉠·㉡·㉢·㉣에 해당하는 인물형이 선인형, ㉤·㉥·㉦·㉧에 해당하는 인물형이 악인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인형과 악인형도 각각의 인물이 지닌 내적 능력의 우열에 따라 ㉠·㉢·㉣·㉦과 ㉡·㉤·㉥·㉧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 때 악인형이면서 그 능력이 비교 우위에 있는 ㉤·㉦의 경우 선인형의 인물형과의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내며, 악인형이면서 능력이 열등한 ㉥·㉧의 경우는 선인형의 철저한 응징 대상이 되곤 한다. 선인형과 악인형 사이에 능력과 자질이 대등하거나 그렇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렇듯 서사 전개와 사건 발생, 갈등 구조를 등장인물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각각의 인물에게 부여된 성품이나 능력의 차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인물의 외모가 개입되는 경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인물의 성품을 두고 ‘善-好 / 惡-不好’라고 했을 때, 외모의 美醜를 ‘美-好 / 醜-不好’라 하여 ‘美-善 / 醜-惡’이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즉 외모의 미추로써 성품의 선악을 판가름할 수 없으며 성품의 선악을 판가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능력의 우열이 서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작품 내적·외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하는 선인형 인물 중, 성품이 바르고 능력도 뛰어나지만 외모에 있어서는 이에 견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과 성품은 바르되 능력도 외모도 별 볼 일이 없어 역할 부여가 미비할 것으로 추측되는 ㉡이 중심인물 혹은 주인공으로 설정되는 경우 외모-성품-능력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어쩌면 이러한 추측도 선입견일 수 있지만 일반적 상식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작품 속에서 ㉠과 ㉡이 지닌 외적 형상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매우 극단적으로 왜곡된 형상으로 설정하여 갈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 ㉡의 공통점은 외모에서의 평가가 그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단지 ‘보잘 것 없다’의 수준을 넘어서 매우 극단적으로 혐오스럽거나 비정상적으로 형상화되었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물 형이 등장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등장인물에 신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이다. <박씨전>이나 <금방울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신성을 지닌 인물의 변신체로 보았을 때, 그들을 평범한 인간과는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왜곡된 형상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징벌의 표징으로서 등장인물에게 부정저적인 외모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형산백옥>과 같이 본인 혹은 제 3자의 죄업으로 인한 대가로서 흉악한 형상이 주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형산백옥>에서는 어머니의 오만방자함으로 인해 딸이 기형으

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신성의 의미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나 <박씨전>이나 <금방울전>에 비해 형벌 자체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해모수신화>에서도 하백이 해모수와 관계 맺은 딸 유화의 입을 새의 부리처럼 길게 늘어버리는 장면이 있다. 이는 내재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하백의 집단(水)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해모수의 집단(天)에 속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표식으로서 해석되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부모의 허락과 절차 없이 함부로 해모수와 관계를 맺은 유화에게 벌을 가하고 있음이 문면에 드러난다. 세 번째는 표준화된 의식세계에 반기를 드는 경우에 인물의 외모를 비틀어 형상화한다. <영이록>의 손기처럼 외형적 열등함이 심리적·내적 열등감과 소외로까지 이어져 인간으로서의 가치마저 훼손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부당하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경우이다. 전혀 열등한 존재일 수 없는 인물이 소외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혹은 외적 형상에 가려 진실성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등장은 현대 문학에서도 계속된다. <병어리삼룡이>의 삼룡이나 <추물>의 언년이 바로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인간의 형상을 지니지 못한 인물들로서 내적 능력이나 성품에 상관없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 온전히 편입하지 못한 채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년에 대한 묘사는 <박씨전>의 박씨를 연상하는 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삼룡이가 지니고 있는 장애는 <영이록>의 손기가 일곱 살이 되어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열 살이 되어도 걸지도 못하는 상황과 흡사하다. 삼룡이와 언년이는 외적 형상이 보통과 '다르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부여받지 못한다. <박씨전>의 박씨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동반한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배척의 대상이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전시대의 작품과 분명히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병어리 삼룡이>와 <추물>에서는 <박씨전>이나 <금방울전>의 등장인물에게 부여되었던 '신성'이 소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삼룡이와 언년이의 형상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외모의 기괴함이나 결합이 곧 인간 자체의 결합과 연결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 뿐만 아니라 감정과 욕망 또한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한 '정상'적인 인물들이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외적 결합이 더 큰 삶의 장애로 작용한다. 더구나 그 삶의 장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와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힘겨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의 부당함과 냉대에 대해 모든 등장인물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박씨전>의 박씨와 <금방울전>의 금방울과 같이 자신이 보유한 능력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러한 능력이 오히려 그 사회 공동체에 온전히 용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스스로의 존재와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며<sup>29)</sup> 표면화된 외모가 내재된 성품과 능력을 가려 타인과의 세계와의 관계맺음에서 낙오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소설을 읽는 독자만이 낙오된 등장인물의 진정성을 감지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부당하게 느끼며 부조리한 현실을 자각하게 될 뿐이다.

등장인물에 대한 부조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지 못 했을 때가 아니

29) 삼룡이는 스스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언년이는 자신의 외모를 한탄하고 원망한다. 삼룡이가 병어리로서 세상과의 소통이 어려운 반면 언년이는 그토록 흉한 몰골임에도 '곱게 생긴 두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삼룡이는 자신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언년이는 두 귀로 날날이 들려오는 모든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받아내야 했던 것이다.

라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자각하면서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된다. <김원전>의 김원이 변신 이전에 자신의 존재성에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모름’으로 인해 수궁할 수 있는 상황도 ‘앓’으로 인해 고통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30)</sup> 결국 이러한 존재성에 대한 고통은 왜곡되고 비틀어진 형상을 소거시킬 수 있을 때 해소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 고전 서사문학에서는 ‘변신’이라는 방법을 택하여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박씨가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김원과 금방울이 사물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될 수 없었던 존재들에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을 회복시켜준 사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이미 타고난 형상을 순간적으로 전환시키는 사건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더 이상 문학 텍스트 내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변신이 서사 내적으로 힘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결말은 비극성과 맞물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현대로 내려올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고전소설의 등장인물과 매우 흡사한 상황에 처해있던 <병어리삼룡이>의 삼룡이와 <추물>의 언년의 삶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외쪽이 설화>는 전혀 다른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확신할 수 없었던, 인지하지 못 했던 자신의 존재성을 회복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끊임없이 세계와의 관계맺음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아와 자아, 자아와 세계의 관계맺음을 변신의 속성이라고 보았을 때 외쪽이는 외적 형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물리적·신체적 변신 없이 변신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

30) 이러한 경우는 <병어리삼룡이>의 삼룡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신 또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아야 함을 ‘알게’ 되면서 저항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병어리삼룡이>와 <추물>도 완전한 비극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어리삼룡이>의 삼룡의 경우, 주인아씨와의 오해로 인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쫓겨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없게 된 순간에 이전의 그가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자기의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모든 것을 없애 버리고 자기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 나올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통의 절정을 맛보게 된다. 무지와 몽매의 어둠에 갇혀 있던 삼룡이가 고통스런 자기 인식을 통해 앞의 빛을 보게 되고 자신의 존재성을 획득하게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삼룡이라는 존재는 '불'에 의해 완전히 소거된다. 삼룡이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던 오생원의 집에 불을 놓음으로써 과거 존재의 이유가 되었던 주인집과 이전의 자신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삼룡이는 주인아씨를 구해내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만다. 화염 속에 갇힌 삼룡이는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쪽이 설화>에서 외쪽이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듯하지만 외쪽이가 집안 깊숙이 숨어있는 욕망의 대상인 신부감을 데리고 나와 결연에 성공하게 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룡이 자체가 가진 한계일 수도 있으며 더 이상의 기적이 허용되지 않는 소설이라는 장르적 속성에서 기인한 까닭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삼룡이는 마지막 순간에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을 '입 가장 자리에 띠며 숨을 거두었다. 자신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욕망의 주체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 동안 외적 형상에 가려진 본체의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삼룡이 스스로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획득했음은 삼룡이는 어둠의 절망에 내려앉아 있던 자신을 희망으로 끌어올리는 구원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웃음’으로 상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언년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흉측한 얼굴과 달리 곱고 예쁘게 생긴 두 귀와 섬세한 바느질 솜씨를 지닌 언년이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감내해야 했으며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마저 자제해야 했다. 왜 그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언년이는 매번 소망하고 꿈꿀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언년이는 삼통이와는 또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인물이다. 곱고 예쁜 두 귀가 상징하듯 언년이는 세상과의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그녀가 지닌 바느질 솜씨도 타인과의 관계맺음에 어느 정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일 수는 없다.

좌절과 원망을 수없이 반복했던 언년이가 온전히 자신으로 인해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순간은 임신기간이었다. 자신도 다른 여자들처럼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다. 내색할 수 없어 잠재해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아가 꿈틀거렸고 그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어여쁜 딸을 낳게 해달라고 칠성님께 빌기까지 하였다. 그녀의 딸만이 자신의 모든 불행한 일생을 보상해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기적은 없었다.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언년이를 통해 작가는 분명히 한 것이다. ‘제 에미를 고대루’ 닮은 언년이 딸을 보고 언년이는 ‘온갖 기대 온갖 꿈 온 생애가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딸이 두려워 그 목숨마저 앗으려 했으나 그럴 수는 없었다. 그래도 좀 크면 좀 크면 설마 나아지겠지 하는 또 다른 기대와 희망만이 그녀의 팽팽했던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었다. 그리고 독자 또한 ‘매끈매끈한’ 아기의 살을 감촉하는 언년이를 통해 힘겹겠지만 정말 나아질지 모른다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

니라 언년이와는 다른 그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끈을 놓을 수 없도록 만든다. 언년의 몸을 뚫고 고통의 끝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 그것은 언년의 새로운 삶의 목적, 삶의 희망이 된다. 그 누구를 통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야 할 행복이 품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소멸의 끝에서 지어보였던 외쪽이의 웃음, 포기과 체념의 끝에 언년이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탄생은 비로소 되찾은 진정한 존재성의 확인이며 자신이 만들어갈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존재와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존재의 완전한 갱신, 죽음 후에 거듭난 새 삶이 가능해지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태도와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니, 곧 현대적 통과의례 구조와<sup>31)</sup>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변신의 또다른 형태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4. <외쪽이 설화>를 통해 본 변신의 의미 확장 가능성

신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문학 속에 등장하는 비틀어진 형상의 원형은 창조가 있기 전 태초의 모습인 질서와 상식의 부재 상태-곧 혼돈과 관련된다고 한다.<sup>32)</sup> 때문에 이미 차이가 생기고 구별이 가능하며 일정한 질서가 잡힌 인간의 세계에서 부정형의 상태-왜곡된 상태로 등장한다는 것은, 적응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외모의 추악함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문학에서는 잘못-죄업에 대한

31) 시몬느 비에른느 지음, 『통과제의와 문학』, 이재실 옮김, 문학동네, 1996, 162-187쪽 참조.

32) 도정일, 「근친상간, 양성(兩性)의 존재, 그리고 괴물」, 도정일의 신화 읽기 7, 『문학동네』5-4호/통권17호, 1998.

징벌·형벌로서 대치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외모의 평범하지 않음이 늘 고통의 형상일 수는 없고 더구나 거부되어야 하는 이유는 더더욱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인지되는 외형의 상태는 대상의 존재성을 가늠하게 되는 첫 번째 척도가 되고 그것이 전체를 표상한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게 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는 인간의 고착화된 인식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가 문학 속에 존재하는 비틀어진 형상을 지닌 이들이라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비정상’이라는 ‘정상’의 맞은편에 서서 무엇이 진정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를 되묻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설화나 고전소설에서는 ‘변신’이라는 장치를 통해 왜곡된 형상을 지닌 등장인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타자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회복하도록 한다. ‘비정상’이라는 껍질을 걷어낸 자리에 ‘정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이라 보이는 것이 본체가 아닐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음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변신’ 기제가 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는다. 특히 더 이상 환상과 초월성에 기댈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오히려 더 왜소하고 나약하며 불완전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신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맨몸으로 세계와의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의 현존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실존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변신 욕망은 문학의 중요한 모티프로서의 상징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설화와 고전소설의 변신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변신모티프가 현실이나 인간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이나 인간을 초월한 그 무엇을 통하여 현실을 긍정하고 인간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었듯이, 온전히 현재적 입장에서 환상적

속성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 의지에는 변함이 없이 보다 상징화된 변신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즉 변신 주체인 인간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탐색하는, 허상에 가려 드러나지 않는 ‘온전한 나’, ‘진실한 나’를 찾아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현재적 입장의 변신 의미에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사문학이 설화, 보다 구체적으로 신화의 전통 위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기형성은 신성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이용되어 그 혈통이나 신분이 ‘고귀한가 / 고귀하지 않은가’를 변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고전소설에서는 신화에서 기형의 상태가 의미했던 신분적 고귀함 외에 기형적 인물이 인간 사회에서 한 인격체로서 ‘인정받는가 / 인정받지 못하는가’에 관심을 두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변신’이라는 과정을 거쳐 정상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의 변신은 변신 주체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찾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쪽만 바라보고 한쪽만 인식하고 있는 인간을 말해주는 듯 반쪽 인간 ‘외쪽이’가 등장하는 <외쪽이 설화>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 반쪽 인간은 온전한 인간 사회에 편입하기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온전한 인간도 이루기 힘든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반쪽 인간 자체로서 존재성을 인정받게 된다.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결손된 외적 형상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고전소설 이후의 작품들에는 그 이전의 인물들에 비해 오히려 왜소하고 나약하며 결손되고 불완전한 인간군상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져주는 작품들이 많다. 하지만 그 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고전소설에서와 같은 비현실적·비과학적 변신은 용납될 수 없고 결함이 있는 인물 스스로 ‘보통’의

‘정상’의 인간 공동체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것은 신체적·외적 결합의 굴레는 물론 인식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는 길이라고<sup>33)</sup> 생각할 수 있으며, 내재된 혹은 가려진 주체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고전소설의 변신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장·변용된 의미의 변신으로서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기왕에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정상 / 비정상’, ‘善 / 惡’, ‘美 / 醜’ 등에 대한 가치 판단이 표면화된 현상에 의해 고착화된 편견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신이란 언제나 본체와 변신체의 양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신체가 假化된 객체라면 본체는 眞本의 객체라 할 수 있는데, 변신모티프가 구현된 문학 작품에서 본체의 정체성을 밝히고 본체가 지닌 진실성을 밝혀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장주의 나비처럼 虛像과 實像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판가름되는 眞假·善惡·是非의 구별이 항상 正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학 작품에서는 眞과 實을 찾아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본체의 진실성이 반드시 正과 관련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에서 변신과 진실의 탐색은 변신 주체의 본체와 변신체를 구분하는 차원에 있다기보다 변신 주체의 진정성이 본체에 있는지 변신체에 있는지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변신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변신모티프는 그 의미와 기능에 있어 변용을 거듭하며 수용되고

---

33) 신연우(앞의 글, 307쪽 참조)는 <외쪽이 설화>와 같은 민담을 들어 ‘자아가 세계와의 싸움을 통해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는 것 또한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자아의 자기실현’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글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의미의 확장된 변신의 의미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자기 존재성 탐색 과정’이라 한 것이다.

있다. 형상의 변화 없이 정신적·심리적 변신만으로도 변신의 의미와 기능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인식의 전환이 변신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특히 인식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서사 내적 관계에서부터 서사 외적 대상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때에는 텍스트의 수용자에게까지 그 충격과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서사 외적 문학 장치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초현실적 사건이 매개되지 않는다 하여도 인간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변신의 또 다른 형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전문학과 달리 근현대문학의 관점에서는 변신이 모든 사건과 갈등의 해결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데에 그 차이가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인간은 근원적으로 변신에 대한 願望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변신을 통해서 閉塞된 현실적인 삶의 지양과 초월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변신이 인간의 근원적 원망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문학 속에서 구현될 것은 분명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나영, 「고전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프 구현 양상과 의미」, 성신여대 박사논문, 2006, 1-161쪽.
- 노승욱, 「이상 소설에 있어서 <변신>의 문제」, 『관악어문학연구』25, 서울대국어국문학회, 2000, 101-125쪽.
- 신연우, 「<외쪽이 설화>와 <地下國大賊退治 說話>에 보이는 自我의 自己實現 양상」, 『열상고전연구』15, 열상고전연구회, 2002, 287-310쪽.
- 어도선, 「라캉의 “거울단계”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몸 철학과 문화비평」, 『비평과 이론』2, 한국비평이론학회, 1997, 67-91쪽.
- 유인경, 「오테석의 <부자유친>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한국극예술학회』17,

- 한국극예술학회, 2003, 189-233쪽.
- 유종영, 「문학에서 그로테스크-문학작품 분석방법으로서의 개념」, 『독일문학』35, 한국독어독문학회, 1985, 212-237쪽.
- 조규형, 「탈식민지론과 몸: 식민에서 디지털까지의 몸 담론」, 『비평과 이론』6-1, 한국비평이론학회, 2001(봄·여름), 157-179쪽.
- 시몬느 비에른느 지음, 『통과제의와 문학』, 이제실 옮김, 문학동네, 1996.
- C. A 반퍼슨, 『몸·영혼·정신』, 손봉호·강연안 옮김, 서광사, 1985.
- Bertolt Brecht, *Bertolt Brecht Werke*, 김기선 옮김, 『서사극이론』, 한마당, 1990.
- Jean Baudrillard, 『시뮬라시옹』, 하태완 譯, 민음사, 1997.
- Pilip Thomson, *The Grotesque*, London: Methuen & Co Ltd, 1972, 김영무 역, 『그로테스크』, 서울대출판부, 1986.

K C I

ABSTRACT

A Switch of Perception through a Distorted Form of Characters, and  
a Possible Extension of the Meaning of a Metamorphosis

Kim, Na-Yeong

This article begins at the interest in characters of narrative classic literature. It is assured that especially, characters with an abnormal and insensible form of the body are focused to identify a process of their being accepted and admitted themselves and socially, and to find the meaning of the process. In narrative classic literature, 'a metamorphosis motif' is invoked as a way of escaping characters' disadvantageous origin due to their distorted and twisted form. A Metamorphosis with a mysterious and fantastic method allows the person to experience a change in his/her being at once and to make the person cope with the world positively.

However, on the assumption that this article is premised on denoting the meaning beyond a simple 'body transformation,' the researcher focuses that a metamorphosis has greater possibility of being extended. In particular, the shift of perception serves to play an important part, both for the character who undergoes a transformation in the text and the reader who receives the text. That is, if readers are provided a chance to change their life through a shift of perception, although surreal events do not serve as a medium, it can be defined another form of a metamorphosis and the meaning.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defines the meaning of a metamorphosis as conscious and unconscious acts on 'relating myself with objects' influencing across the live and being of humans. Especially, when a character's form of 'the body' appears to be unexpected distorted shape, relating 'myself' and 'objects' can be occurred by the metamorphosis of 'a shift of perception.' Likewise, if the meaning of a metamorphosis is

extended, 'a metamorphosis' the fundamental desire of humans, can be implemented, whatever ways, in literature. This article gauges the possibility with *a tale of Oejjogi*.

**Key Words** relationship, metamorphosis, shift of perception, ego-identify, conversion of cognizance, relief, positive future, *a tale of Oejjogi*

|                     |
|---------------------|
| 논문투고일 : 2006. 5. 15 |
| 심사완료일 : 2006. 5. 29 |
| 게재확정일 : 2006. 6. 12 |

K C I